

초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성격 강점, 정서지능, 학습몰입 비교 및 관계 분석

박 문 숙

유 미 현

현일초등학교

아주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성격 강점, 정서지능 및 학습몰입을 비교하고 관련성을 알아보며, 성격 강점과 정서지능, 학습몰입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 영재학생이 성격 강점, 정서지능 및 학습몰입 전체에서 일반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인간에는 두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핵심 덕목이었다. 영재 학생은 겸손과 겸양에서는 일반 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정서지능과 학습몰입 모든 하위영역에서 영재학생이 일반 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둘째, 초등 영재학생은 성격 강점과 정서지능, 성격 강점과 학습몰입 간에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셋째, 초등 영재학생의 성격 강점은 정서지능과 학습몰입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초등 영재학생, 일반학생, 성격 강점, 정서지능, 학습몰입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람들은 인생의 가장 큰 목표를 행복한 삶이라고 한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련의 활동들은 궁극적으로는 행복하기 위한 것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람되게 잘 살았다고 생각한다. 행복은 타고난 재능과는 달리 일종의 마인드 컨트롤(mind-control)을 통해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수없이 쏟아지는 자기개발서와 명상 서적들이 베스트셀러로 등극하는 것이다.

심리학에서도 부정적인 모습을 수정하려는 시도보다는 “무엇이 인간의 행복을 보장하는가?”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를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했는데, 이것이 긍정심리학의 모태가 된다. Seligman(1998)은 심리학은 인간의 약점과 장애가 아닌 인간의 강점과 덕성을 연구하는 학문이기도 해야 한다고 하며, 진정한 치료는 손상된 것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최선의 가능성을 내면에서 이끌어내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새로운 방향을 긍정심

교신저자: 유미현(ymh0120@ajou.ac.kr)

리학(Positive Psychology)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이로 인해 Seligman은 긍정심리학의 창시자가 되었다. Seligman뿐 아니라 몰입의 연구자인 Csikszentmihalyi, 주관적 안녕 연구의 선구자인 Diener, 성격 강점과 덕성의 연구자인 Peterson과 같은 많은 심리학자들이 긍정심리학의 이론적 정립 및 발전에 기여하였다(권석만, 2008; 권석만, 2011). 긍정심리학이 주목을 받고 많은 연구와 발전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궁극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선천적인 재능보다는 자신의 특성을 알고 깨달음으로써 개발이 가능하며 이것이 행복과 연계될 수 있다는 점이다. Peterson(2006)은 좋은 성격을 통찰, 협동심, 친절, 희망과 같은 긍정적인 성향의 군집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성격이 다차원적인 것임을 드러내기 위해 각 요소를 성격 강점이라고 불렀다. 그 후 진행된 연구에서 성격 강점과 행복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Park, Peterson & Seligman, 2004; Park & Peterson, 2006; 박윤정 외, 2013).

Seligman(2002)은 단점에 집착하지 말고 자신의 대표 강점을 찾고 이를 생활에 활용하고 몰입함으로써 즐거움을 찾으라고 하였다. 긍정심리학에서는 행복한 사람의 특징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적 정서와 성품을 지니며, 자신의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적극적인 호기심을 표시하고 몰입하는 사람이라고 하였다(Csikszentmihalyi, 1996; Csikszentmihalyi, 1997).

성격 강점은 사고, 정서 및 행동에 반영되어 있는 긍정적 특질이고(Park, Peterson & Seligman, 2004), 이러한 강점과 덕목들은 인간이 심리적으로 최적의 발달을 이루도록 도와준다(Seligman, 2002). 그 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성격 강점 연구들은 주로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성격 강점이 정서적 안녕감, 주관적 행복감, 자아정체감과 같은 정서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와 학교생활 만족도나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연구 등이 주로 이루어졌다. 이는 성격 강점이 여러 가지 정서적, 인지적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성격 강점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김미진(2011)은 성격 강점의 활용과 인식이 행복과 안녕을 증진시키고, 개인의 성격 강점을 발견하고 개발하거나 학습하도록 지지해주는 교육이나 상담을 통해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신혜진(2011)은 청소년들은 지각된 대표 강점과 실제 대표 강점의 일치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았고, 주관적 행복감과 자아정체감도 높았다고 하였다. 김지영(2011)은 성격 강점이 성격 장애에 비해 안녕감과 보다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고, 개인의 대표강점을 인식하거나 활용한 집단이 개인의 약점을 인식하거나 보완한 집단에 비해 안녕감의 증가량과 우울증상의 감소량이 더 큰 것으로 밝혀져, 개인의 대표강점에 기반한 개입 방식이 정신장애의 적극적인 예방과 정신건강의 증진에 효과적임을 입증하였다. 즉, 자신의 성격 강점을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손보영(2011)은 초등학교 학생의 성격 강점과 학년과의 관계는 부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특질과 잠재력이 약화됨을 의미하며, 성격 강점이 학업성적과 학교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또, 박효진(2012)은 인기아는 비인기아에 비해 학구열, 사랑, 시민의식, 자기조절, 유머에서 높은 성격 강점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자신이 가진 성격 강점을 파악하고 발달시킴으로써 학교 내 폭력 문제 및 왕따 문제를 극복하고 보다 행복한 학교생활을 해 나가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신행자(2011)는 성격 강점 수준이 높을수록 문제 중심 대처,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 정서 대처, 소망적 대처 등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다양하고 높았으며,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았다고 했다. 즉, 성격 강점 발달이 학교생활 만족도나 인기, 스트레스 등을 극복하는 데도 도움을 주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해 나가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신의 대표 성격 강점의 인식 및 활용이 행복감과 자아정체감,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연구 결과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 학생이 아닌 영재학생의 성격 강점이 영재의 인지적, 정의적 특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현재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Renzulli(1978)에 의하면 영재는 과제집착력, 즉 어떤 한 가지 과제 또는 영역에 자신의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즉 몰입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영재의 몰입 특성과 관련한 연구는 주로 학습몰입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 초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학습몰입을 비교한 여러 선행연구(구영수, 양연숙, 2013; 남희영, 2011; 민현숙, 양연숙, 2012; 우민향, 2013; 정민, 2014)에서는 영재학생이 일반학생보다 학습몰입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과학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과학학습동기와 학습몰입의 관계를 분석한 이미선(2014)의 연구에서도 영재학생이 일반학생보다 전체적으로 학습몰입이 높았고, 특히 ‘통제감’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났는데 이는 영재학생이 일반학생보다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영재학생이 일반학생에 비해 학습몰입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는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이유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이유를 밝히는 방법으로 인간의 심리적 발달을 돕는 성격 강점이 학습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심층적으로 조사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긍정심리학에서 말하는 성격 강점이 영재의 특성인 학습몰입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연구는 영재의 특성에 대해 보다 정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판단된다.

한편 영재의 정서적 특성 중 하나인 정서지능은 Goleman(1995)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그 후 Mayer & Slovey(1997)에 의해 이론적으로 모형화되었다. 여러 선행연구들(여상인, 백은주, 2007; 이영한, 유미현, 2012; 이유진, 2012; 이은희, 2013)에서 영재학생이 일반학생에 비해 정서지능이 유의미하게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영재학생이 정서지능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 역시 성격 강점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영재성의 발달이 정서지능과 같은 정서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보고되고 있다(윤여홍, 2000).

이와 같이 영재학생의 학습몰입과 정서지능과 관련한 연구들은 각각 이루어져왔다. 영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 강점이 학습몰입, 정서지능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알아보는 연구는 영재의 정서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를 계발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동안 영재학생의 대표적 정서적 특성이며 성격 강점과도 관계가 깊을 것으로 생각되는 학습몰입과 정서지능과 관련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 강점이 영재의 인지적, 정서적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서지능, 학습몰입과 어떤 관계가 있는

지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보고된 성격 강점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경력 사원과 기존 사원의 성격 강점, 행복, 학습몰입에 대해 연구한 맹지현(2012)의 연구가 유일하다.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 강점은 경력 사원에게는 용기와 절제가 높을수록, 기존 사원의 경우에는 지혜와 지식, 용기, 초월성이 높을수록 학습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맹지현,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성격 강점과 정서지능, 학습몰입의 차이를 비교하고, 영재의 성격 강점과 정서지능, 학습몰입의 관계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연구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영재의 정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초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성격 강점, 정서지능 및 학습몰입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둘째, 초등 영재학생의 성격 강점과 정서지능, 성격 강점과 학습몰입의 관계는 어떠한가?
- 셋째, 초등 영재학생의 성격 강점이 정서지능 및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경기도 소재 P 교육지원청 부설 영재교육원 및 동일 관내 초등학교 영재학급에 재학 중인 영재 학생 151명과 동일 지역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일반학생 223명이다.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의 학생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관찰·추천제에 따라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활동 자료 등을 통한 서류 심사를 거친 후 영재성 검사, 심층면접의 절차를 통해 선발되어 경기도교육청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학생들이다. 일반학생은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을 다녀본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다. 이들의 성별 및 학년 분포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의 성별 및 학년 분포 (단위: 명)

대상		영재학생	일반학생
초등 5학년	남	39	55
	여	35	45
초등 6학년	남	40	63
	여	37	60
합 계		151	223

2. 검사 도구

본 연구의 검사 도구는 초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성격 강점과 정서지능 및 학습몰입을 알아보는 Likert식 5단계 평정 척도 설문지이다. 설문 문항은 성격 강점을 측정하기 위한 48 문항과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한 40문항, 학습몰입을 측정하기 위한 29문항으로 전체 117

문항이다. 측정 방법은 구글폼을 이용해 인터넷으로 실시하는 방법과 설문지를 인쇄하여 지필로 실시하는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가. 성격 강점 검사 도구

본 연구에서 개인의 성격 강점 척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검사 도구는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 Handbook and Classification’(Peterson & Seligman, 2004)을 번역한 ‘긍정심리학의 입장에서 본 성격 강점과 덕목의 분류(Peterson & Seligman, 2009)’에서 청소년용 성격 강점 척도(VIA-Youth)로 제시한 48문항의 설문지이다. 교육전문가와 영재교육 전문가의 협조를 얻어 1차 수정을 하였고, 수정을 한 설문지는 다시 pilot test를 거쳐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문항들은 성격 강점 척도 24가지(6개의 핵심덕목으로 구성)를 각 척도마다 부정문항을 포함하여 2문항씩 총 4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85로 나타났다. 성격 강점 척도의 문항 구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성격 강점 척도의 문항 구성

핵심 덕목	성격 강점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지혜와 지식	창의성	2	1, 2*	.745
	호기심	2	3, 4*	
	개방성	2	5, 6*	
	학구열	2	7, 8*	
	통찰	2	9, 10*	
용기	용감함	2	11, 12*	.705
	인내	2	13, 14*	
	진정성	2	15, 16*	
	활력	2	17, 18*	
인간애	사랑	2	19, 20*	.664
	친절	2	21, 22*	
	사회성	2	23, 24*	
정의	시민의식	2	25, 26*	.458
	공정함	2	27, 28*	
	지도력	2	29, 30*	
절제	용서와 자비	2	31, 32*	.396
	겸손과 겸양	2	33, 34*	
	신중함	2	35, 36*	
	자기조절	2	37, 38*	
초월성	심미안	2	39, 40*	.625
	감사	2	41, 42*	
	희망	2	43, 44*	
	유머	2	45, 46*	
	영성	2	47, 48*	

*의 문항은 역채점 문항임.

각 핵심 덕목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Peterson & Seligman, 2009)

1) 지혜와 지식(wisdom & knowledge)

창의성은 어떤 일을 하면서 새롭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생각하는 능력으로 참신한 사고와 생산적인 행동방식을 포함한다. 호기심은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경험과 현상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는 능력으로서 다양한 주제와 화제에서 매혹되어 조사하고 발견하는 것을 포함한다. 개방성은 사물이나 현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철저히 생각하고 검토하는 능력으로 모든 증거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새로운 증거에 따라 신념을 수정하는 태도를 포함한다. 학구열은 새로운 기술, 주제, 지식을 배우고 숙달하려는 동기와 능력을 의미한다. 통찰은 사물이나 현상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현명한 조언을 제공해 주는 능력을 뜻한다.

2) 용기(courage)

용감함은 위협, 도전, 난관, 고통으로부터 위축되지 않고 이를 극복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저항이 있더라도 무엇이 옳은지 이야기하고 인기가 없을지라도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포함한다. 진정성은 진실을 말하고 자신을 진실한 방식으로 제시하는 능력으로 자신을 거짓 없이 드러내고 행동이나 감정을 수용하고 책임지는 것을 포함한다. 인내는 시작한 일을 마무리하여 완성하는 능력을 말하며 장애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계획된 행동을 지속하거나 과업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을 포함한다. 활력은 활기와 에너지를 가지고 삶과 일을 접근하는 태도를 의미하며, 생기와 생동감을 느끼며 삶을 모험적으로 사는 것을 포함한다.

3) 인간애(humanity)

사랑은 다른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실천하는 능력을 뜻한다. 친절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호의를 보이고 선한 행동을 하려는 동기와 실천력으로서 다른 사람을 돕고 보살피는 행동을 포함한다. 사회성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동기와 감정을 잘 파악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잘 아는 능력을 의미한다.

4) 정의(justice)

시민의식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책임의식으로서 사회나 조직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와 역할을 인식하고 부응하려는 태도를 뜻한다. 공정함은 공정하고 정의롭게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하고 타인에 대한 판단에서 사적인 감정으로 편향되게 대하지 않으며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한다. 지도력은 집단 활동을 조직화하고 그러한 활동이 진행되는 것을 파악하여 관리하는 능력으로서 구성원을 고무시켜 좋은 관계를 창출해내고 사기를 진작시켜 각자의 일을 해내도록 지휘하는 것을 포함한다.

5) 절제(temperance)

용서와 자비는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능력으로서 잘못을 행한 자를 용서하고,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며, 양심을 품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겸손과 겸양은 자신이 이루어낸 성취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과장된 허세를 부리지 않는 태도로서 자신의 성취나 업적을 떠벌리지 않고, 세인의 주목을 구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신중함은 선택을 조심스럽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위험을 다루지 않으며 나중에 후회할 일을 말하거나 행하지 않는 능력을 말한다. 자기조절은 자신의 다양한 감정, 욕구, 행동을 적절하게 잘 조절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6) 초월성(transcendence)

심미안은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움, 수월성, 뛰어난 수행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감사는 좋은 일을 잘 알아차리고 그에 대해 감사하는 태도를 뜻한다. 희망은 최선을 예상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유머는 웃고 장난치는 일을 좋아하며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능력을 말한다. 영성은 인생의 궁극적 목적과 의미에 대한 일관성 있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태도를 말한다.

나. 정서지능 검사 도구

본 연구에서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검사 도구는 Mayer와 Salovey의 정서지능 초기 모형을 기초로 하여 그 이후 수정된 정서지능 최근 모형에 입각하여 문용린(1999)이 제작한 검사지를 최경아(2005)가 수정한 청소년용 정서지능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초등학생의 수준에 맞게 수정한 후 교육전문가와 영재교육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았고, pilot test를 거쳐 설문지로 완성하였다. 이 검사 도구는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 감정이입능력, 정서의 사고추진능력, 정서지식의 활용능력, 정서조절능력 등 5개의 하위영역별로 8개 문항씩 총 4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정서지능 검사에서 하위영역별 문항 구성과 내적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표 3>과 같다.

<표 3> 정서지능 측정의 하위영역별 문항 구성

하위영역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	8	1, 6, 11, 16, 21, 26, 31*, 36*	.625
감정이입능력	8	2, 7, 12, 17, 22, 27, 32*, 37*	.766
정서의 사고추진능력	8	3, 8, 13, 18, 23, 28, 33, 38	.822
정서지식의 활용능력	8	4, 9, 14, 19, 24, 29, 34, 39	.686
정서조절능력	8	5, 10*, 15*, 20*, 25*, 30*, 35*, 40*	.600
정서지능	40	전 체	.857

*의 문항은 역채점 문항임.

정서지능의 각 하위영역별 의미는 다음과 같다(최경아, 2005).

- 1) 정서 인식과 표현 능력 : 자신과 타인의 감정과 기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 2) 감정이입 능력: 타인의 감정과 기분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 3) 정서의 사고 추진 능력: 중요한 사건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여 사고를 형성하고 추진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 4) 정서 지식의 이해 능력: 정서를 이해하고 정서 정보가 담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 5) 정서 조절 능력: 정서적·지적 성장의 향상을 위하여 정서를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을 말한다.

다. 학습몰입 검사 도구

본 연구에서는 학습몰입을 측정하기 위해 김아영, 탁하얀, 이체희(2010)가 개발한 학습몰입 척도(맹지현, 2012)를 교육전문가와 영재교육 전문가의 협조를 얻어 1차 수정을 하였고,

수정을 한 설문지는 다시 pilot test를 거쳐 설문지로 완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학습몰입 척도는 도전과 능력의 조화 3문항, 행위와 의식의 통합 3문항, 명확한 목표 3문항, 구체적인 피드백 3문항, 과제에 대한 집중 3문항, 통제감 3문항, 자의식의 상실 3문항, 시간감각의 왜곡 3문항, 자기목적적 경험 5문항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에서 사용된 각 하위영역별 문항 구성과 내적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표 4>와 같다.

<표 4> 학습몰입 검사 도구의 하위영역별 문항 구성

하위영역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도전과 능력의 조화	3	1, 2, 3	.862
행위와 의식의 통합	3	10, 11, 12	.857
명확한 목표	3	4, 5, 6	.830
구체적인 피드백	3	7, 8, 9	.840
과제에 대한 집중	3	13, 14, 15	.862
통제감	3	16, 17, 18	.839
자의식의 상실	3	19, 20, 21	.854
시간감각의 왜곡	3	22, 23, 24	.809
자기목적적 경험	5	25, 26, 27, 28, 29	.931
학습몰입	29	전 체	.966

학습몰입 척도의 각 하위영역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석임복, 2007).

- 1) 도전과 능력의 조화(challenge-skill balance): 상황에 대한 도전과 그 도전에 적절한 개인의 능력 사이의 균형을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
- 2) 행위와 의식의 통합(action-awareness merging): 몰입 상태에서 자신들의 활동이 의식 없이 거의 자동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 3) 명확한 목표(clear goals): 사전에 분명한 목표를 정함으로써 자신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을 의미한다.
- 4) 구체적 피드백(unambiguous feedbacks): 수행 중의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피드백을 뜻한다.
- 5) 과제에 대한 집중(concentration on task at hand): 완벽하게 과제에 집중하여 불필요한 정보가 마음속에 남아있지 못하도록 하는 상태이다.
- 6) 통제감(sense of control) : 몰입을 하는 동안에 실질적으로 통제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스스로 통제 감각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 7) 자의식의 상실(loss of self-consciousness): 몰입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활동에 몰두한다. 자신의 지금 모습이 어떤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등 자신에 대한 생각이나 자의식에 신경을 쓰지 않고 수행 활동과 자신이 하나가 되는 현상을 말한다.
- 8) 시간감각의 왜곡(transformation of time): 실제시간과 어떤 과제를 수행하면서 느끼는 감각적인 시간이 달라 시간에 대한 지각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 9) 자기목적적 경험(autotelic experience): 몰입의 가장 상위단계로, 행위 그 자체 말고는 외부적

인 어떤 보상이나 목표도 필요로 하지 않고 스스로 내재적인 보상을 받는 경험을 말한다.

3. 자료 처리 방법

초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성격 강점 척도, 정서지능 및 학습몰입 척도의 배점은 ‘매우 그렇다’는 5점, ‘대체로 그렇다’는 4점, ‘보통이다’는 3점, ‘별로 그렇지 않다’는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을 부여하였으며, 부정 문항은 역채점하여 결과를 합산하였다.

본 연구는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SPSS WIN 18.0 프로그램으로 코딩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초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성격 강점, 정서지능 및 학습몰입과 관련하여 초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차이를 평균(M), 표준편차(SD)를 산출하고, Levene의 등분산 검정의 유의확률 유의수준(0.05)에 따라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채택해 독립표본 t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초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성격 강점, 정서지능 및 학습몰입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는데, 모집단의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정규성의 검토 없이 이변량 상관분석을 하였다.

또, 성격 강점이 정서지능 및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설명변수가 하나인 단순회귀분석과 설명변수가 여러 개 있는 다중회귀분석을 하였고, 분산분석표의 p 값에 따라 회귀모형의 유의여부를 판단하였다. 특히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분석하기 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VIF 값을 확인하여 적합성을 따진 후 결과로 정리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1. 초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성격 강점, 정서지능 및 학습몰입 비교

가. 초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성격 강점 비교

초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성격 강점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성격 강점 전체 및 핵심 덕목 평균을 비교하고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초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성격 강점 전체 및 핵심 덕목 비교

영역	영재학생(N=151)		일반학생(N=223)		t	p
	M	SD	M	SD		
성격 강점 전체	3.84	.402	3.43	.408	9.37	.000
지혜와 지식	3.92	.534	3.33	.493	10.961	.000
핵심 덕목						
용기	3.93	.512	3.38	.604	9.138	.000
인간애	4.14	.626	3.79	.652	5.184	.000
정의	3.80	.551	3.29	.449	9.425	.000
절제	3.47	.435	3.31	.431	3.677	.000
초월성	3.83	.564	3.59	.560	3.861	.000

분석 결과 초등 영재학생의 성격 강점 전체 평균이 3.84점, 일반학생의 성격 강점은 평균이 3.43점으로 초등 영재학생이 일반학생보다 성격 강점 전체 점수가 더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p<.001$). 핵심 덕목별 비교에서도 초등 영재학생이 모든 영역에서 일반학생보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는 초등 영재학생이 일반학생보다 내적인 긍정적 성격 강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 모두 사랑, 친절, 사회성의 성격 강점을 포함하고 있는 인간애의 덕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영재학생은 핵심 덕목 중 절제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고, 일반학생은 정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를 나타내는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핵심 덕목을 구성하는 하위 강점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분석 결과 성격 강점의 24개 덕목 중 21개의 덕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그 중 20개의 덕목에서 초등 영재학생이 일반학생보다 평균이 높았다. 초등 영재학생은 감사, 사랑, 친절, 인내, 호기심, 학구열, 심미안, 희망에서 4점 이상의 높은 평균을 보였고, 일반학생은 사랑만 높은 평균이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의 가장 높은 성격 강점은 ‘사랑’으로 나타났고, 초등학교 고학년의 성별에 따른 성격 강점 연구에서도 남학생, 여학생 모두 가장 높

<표 6> 초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성격 강점 비교

핵심 덕목	성격 강점	영재학생(N=151)		일반학생(N=223)		t	p
		M	SD	M	SD		
지혜와 지식	창의성	3.81	.778	3.25	.661	7.249	.000
	호기심	4.16	.686	3.43	.853	9.077	.000
	개방성	3.58	.886	3.08	.662	5.907	.000
	학구열	4.13	.659	3.43	.828	9.054	.000
	통찰	3.93	.808	3.47	.811	5.401	.000
용기	용감함	3.66	.749	3.36	.766	3.738	.000
	인내	4.18	.715	3.56	.916	7.274	.000
	진정성	3.94	.731	3.30	.823	7.851	.000
	활력	3.95	.845	3.31	.827	7.279	.000
인간애	사랑	4.31	.824	4.01	.913	3.319	.001
	친절	4.20	.809	3.82	.770	4.577	.000
	사회성	3.91	.890	3.54	.827	4.072	.000
정의	시민의식	3.96	.716	3.49	.698	6.205	.000
	공정함	3.91	.850	3.17	.599	9.300	.000
	지도력	3.54	.895	3.22	.725	3.655	.000
절제	용서와 자비	3.87	.903	3.70	.944	1.768	.078
	겸손과 겸양	2.95	.786	3.26	.691	-3.93	.000
	신중함	3.16	.784	2.90	.733	3.259	.001
	자기조절	3.92	.734	3.37	.907	6.480	.000
초월성	심미안	4.12	1.05	3.80	.976	2.921	.004
	감사	4.38	.714	3.87	.909	6.084	.000
	희망	4.06	.783	3.67	.772	4.810	.000
	유머	3.77	1.20	3.67	1.20	.831	.407
	영성	2.84	1.27	2.97	1.21	-.982	.327

은 성격 강점이 '사랑'으로 나타났다는 선행연구(박효진, 2012) 결과와도 일치한다.

일반학생은 사랑, 감사, 친절, 심미안, 용서와 자비, 희망 순으로 평균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초등 영재학생의 높은 상위 강점과 거의 일치하는 순으로 사회에서 요구되는 긍정적인 특질과 잠재 능력은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으나 덜 발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초등 영재학생이 일반학생에 비해 평균 차가 크게 나타나는 성격 강점은 긍정함, 호기심과 학구열 등이다. 이러한 강점들은 영재아들이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특성인 '리더십이 있다', '호기심이 많다', '학습의 즐거움과 학습 동기가 강하다'와 관련이 있다(윤여홍, 2000; 윤여홍, 2003). 즉 호기심과 학구열은 영재학생을 판별하는 주된 강점이라고 볼 수 있다.

초등 영재학생이 일반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유일한 강점은 겸손과 겸양이었다. 겸손과 겸양은 영성과 함께 평균이 2점대로 매우 낮았다. 겸손과 겸양은 '자신을 드러내려 애쓰지 않고 자신의 장점이나 성취에 대해 절제된 평가를 내리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겸손한 태도'를 의미한다. 이는 영재학생이 뛰어난 언어 발달과 지나친 지적 호기심으로 인해 의욕이 넘치고 때로는 잘난 척을 하거나 논쟁적인 특성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박성익 외, 2003). 그러나 겸손과 겸양의 부족은 또래와의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영재를 위한 겸손과 겸양의 덕목을 기를 수 있는 영재 정서 발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나. 초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정서지능 비교

초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정서지능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평균을 비교하고 독립 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초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정서지능 비교

영역	영재학생(N=151)		일반학생(N=223)		<i>t</i>	<i>p</i>
	<i>M</i>	<i>SD</i>	<i>M</i>	<i>SD</i>		
정서지능 전체	3.76	.433	3.38	.399	8.831	.000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	3.89	.854	3.44	.582	5.662	.000
감정이입능력	3.93	.660	3.57	.655	5.294	.000
정서의 사고촉진능력	3.99	.631	3.48	.592	8.047	.000
정서지식의 활용능력	3.83	.621	3.40	.544	6.991	.000
정서조절능력	3.17	.653	3.00	.578	2.563	.011

분석 결과 초등 영재학생의 정서지능 전체 평균이 3.76점, 일반학생의 정서지능은 평균이 3.38점으로 초등 영재학생이 일반학생보다 정서지능 전체 점수가 더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p < .001$). 이는 초등 영재학생의 정서지능이 일반학생의 정서지능보다 유의미하게 높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민재식, 2011; 여상인, 백은주, 2007; 이영환과 유미현, 2012; 이유진, 2012; 이은희, 2013; 최상원, 2004).

초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정서지능 하위영역의 비교에서도 초등 영재학생이 정서지능 하위 모든 영역에서 일반학생보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이

는 영재가 일반적으로 자아개념이 높고 자기 통제력이 높으며 주어진 일을 끝까지 해내려는 욕구와 함께 과제집착력, 끈기, 인내심도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된다(윤여홍, 2003). 자신의 감정 및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며 주어진 목표를 향해 자신의 정서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정서지능은 영재아의 정서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박성익 외, 2003; de Wet & 정현철, 2009).

다. 초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학습몰입 비교

초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학습몰입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평균을 비교하고 독립 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초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학습몰입 비교

영역	영재학생(N=151)		일반학생(N=223)		<i>t</i>	<i>p</i>
	<i>M</i>	<i>SD</i>	<i>M</i>	<i>SD</i>		
학습몰입 전체	3.78	.712	2.98	.664	10.942	.000
도전과 능력의 조화	4.08	.806	3.38	.802	8.262	.000
행위와 의식의 통합	3.80	.888	3.08	.795	9.053	.000
명확한 목표	4.02	.875	3.19	.870	8.126	.000
구체적인 피드백	3.93	.824	3.24	.790	8.061	.000
과제에 대한 집중	3.61	.949	2.81	.870	8.292	.000
통제감	3.77	.889	3.03	.787	8.265	.000
자의식의 상실	3.37	1.05	2.54	.902	7.894	.000
시간감각의 왜곡	3.82	.982	2.91	.926	8.991	.000
자기목적적 경험	3.70	.928	2.80	.867	9.459	.000

분석 결과 초등 영재학생의 학습몰입 전체 평균이 3.78점, 일반학생의 학습몰입은 평균이 2.98점으로 초등 영재학생이 일반학생보다 학습몰입 전체 점수가 더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01$). 이는 영재학생의 학습몰입이 일반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대부분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구영수, 양연숙, 2013; 김대성, 2012; 남희영, 2011; 민현숙, 양연숙, 2012; 박하진, 2011; 이지호, 2010). 이는 영재의 특성 중 높은 주의집중 능력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영재는 주의집중이 길고 흥미나 호기심, 관심 분야에 지속적으로 몰두하는 특성이 있다(박성익 외, 2003). 이로 인해 다른 과제로 이동하지 못하고 주변에서 벌어지는 무관심할 정도로 자기 일에만 편중되어 몰두하는 부정적인 행동이 나타나기도 한다.

초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학습몰입 하위영역의 분석 결과에서도 초등 영재학생이 학습몰입 모든 하위영역에서 일반학생보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이는 학습몰입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초등 영재학생이 일반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정민(2014)과 우민향(2013)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초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평균 차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학습몰입 하위영역은 ‘시간감각

의 왜곡'으로, 이는 '통제감'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난다는 이미선(2014)의 연구 결과와는 다르다. 그 다음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는 영역은 '자기목적적 경험'과 '자의식의 상실'순으로, 이 영역들은 학습몰입의 상위단계로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을 판별할 수 있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영재학생이 일반학생에 비해 좀 더 고차원적인 몰입의 단계에 빠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2. 초등 영재학생의 성격 강점과 정서지능, 학습몰입의 관계

가. 초등 영재학생의 성격 강점과 정서지능과의 상관관계

초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성격 강점과 정서지능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초등 영재학생의 성격 강점과 정서지능과의 상관관계

	정서인식 및 표현	감정이입	정서의 사고촉진	정서지식 활용	정서조절 능력	정서지능 전체
지혜와 지식	.426**	.358**	.537**	.141	.231**	.544**
성격						
용기	.320**	.372**	.408**	-.115	.378**	.439**
강점						
인간애	.342**	.510**	.397**	.043	.276**	.502**
핵심						
정	.376**	.496**	.448**	.017	.311**	.529**
덕목						
절제	.309**	.234**	.304**	.074	.256**	.380**
초월성	.363**	.481**	.491**	.166*	.281**	.565**
성격 강점 전체	.479**	.545**	.588**	.088	.380**	.666**

* $p < .05$, ** $p < .01$

분석 결과 초등 영재학생의 성격 강점 전체와 정서지능 전체는 매우 높은 정적 상관관계수($r=.666, p<.01$)를 나타내고 있다. 성격 강점 핵심 덕목 중 초월성($r=.565, p<.01$)이 정서지능 전체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성격 강점 핵심 덕목 모두 정서지능 전체와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성격 강점 핵심덕목과 정서지능의 하위영역에서도 정서지식활용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r=.231\sim.537, p<.01$)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 중 정서의 사고촉진과 지혜와 지식 덕목($r=.537, p<.01$), 감정이입과 인간애($r=.510, p<.01$)의 덕목은 높은 상관을 보였다.

즉 초등 영재학생은 성격 강점과 정서지능과의 상관관계가 높고, 정서의 사고촉진과 지혜와 지식과의 상관이 가장 높았다. 이는 성격 강점이 높은 영재학생이 정서지능도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초등 영재학생은 정서의 인지적 처리과정에서 지혜와 지식의 강점을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 초등 영재학생의 성격 강점과 학습몰입과의 상관관계

초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성격 강점과 학습몰입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초등 영재학생의 성격 강점과 학습몰입의 상관계수

	지혜와 지식	용기	인간에	정의	절제	초월성	성격 강점 전체
학습 몰입 하위 영역	도전과 능력의 조화	.563**	.451**	.357**	.302**	.204*	.316**
	행위와 의식의 통합	.509**	.479**	.395**	.350**	.382**	.300**
	명확한 목표	.497**	.478**	.353**	.411**	.361**	.365**
	구체적인 피드백	.576**	.490**	.343**	.267**	.269**	.269**
	과제에 대한 집중	.474**	.501**	.339**	.373**	.311**	.291**
	통제감	.469**	.430**	.326**	.239**	.130	.231**
	자의식의 상실	.443**	.321*	.187*	.308**	.144	.238**
	시간감각의 왜곡	.425**	.374**	.185*	.338**	.239**	.250**
	자기목적적 경험	.356**	.489**	.329**	.343*	.265**	.353**
	학습몰입 전체	.639**	.571**	.397**	.420**	.327**	.376**

* $p < .05$, ** $p < .01$

분석 결과 초등 영재학생의 성격 강점 전체와 학습몰입 전체는 매우 높은 정적상관 계수 ($r = .616, p < .01$)를 나타내고 있다. 성격 강점 전체와는 학습몰입의 하위영역 중 명확한 목표 ($r = .551, p < .01$)와 행위와 의식의 통합($r = .536, p < .01$), 자기목적적 경험($r = .527, p < .01$), 과제에 대한 집중($r = .509, p < .01$), 구체적인 피드백과 도전과 능력의 조화($r = .503, p < .01$)의 순으로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시간감각의 왜곡과 통제감, 자의식의 상실 순이다. 학습몰입 전체와는 성격 강점 핵심 덕목 중 지혜와 지식($r = .639, p < .01$)이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고, 성격 강점 핵심 덕목 모두에서 학습몰입 전체와 상관을 보였다.

초등 영재학생의 성격 강점 핵심덕목과 학습몰입의 하위영역에서도 절제와 통제감, 절제와 자의식의 상실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r = .185 \sim .576, p < .05$)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 중 지혜와 지식과 구체적인 피드백($r = .576, p < .01$), 지혜와 지식과 도전과 능력의 조화($r = .563, p < .01$), 지혜와 지식과 행위와 의식의 통합($r = .509, p < .01$), 용기와 과제에 대한 집중($r = .501, p < .01$)은 높은 상관을 보였다.

성격 강점과 학습몰입과의 상관관계가 높고, 구체적인 피드백과 지혜와 지식과의 상관이 가장 높았다. 이는 초등 영재학생은 성격 강점이 높은 학생이 학습몰입도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초등 영재학생은 활동 중에 정확하고 신속한 피드백인 ‘구체적인 피드백’을 위해 ‘지혜와 지식’의 강점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초등 영재학생의 성격 강점이 정서지능 및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가. 초등 영재학생의 성격 강점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초등 영재학생의 성격 강점 전체 및 핵심 덕목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1>과 같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다중공선성의 정도를 확인한 결과 VIF의 값이 1.424~2.433으로 적합하여 결과로 정리하였다.

<표 11> 초등 영재학생의 성격 강점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표준오차	β	t	F	R ²
정서 지능	성격 강점	.719	.066	.666	10.910***	119.034***	.444
	지혜와 지식	.240	.067	.296	3.588***		
	용기	-.079	.075	-.093	-1.045		
	인간애	.086	.058	.124	1.488	21.900***	.477
	정의	.142	.065	.181	2.186*		
	절제	.088	.089	.089	1.292		
	초월성	.225	.292	.292	3.876***		

* $p<.05$, *** $p<.001$

분석 결과 초등 영재학생의 정서지능은 성격 강점에 의해 44.4% 설명되었다($F=119.034$, $p<.001$). 초등 영재학생의 정서지능은 성격 강점($\beta=.719$, $p<.001$)의 영향을 받았고, 이는 초등 영재학생의 정서지능은 성격 강점이 높을수록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또 초등 영재학생의 정서지능은 성격 강점 핵심 덕목에 의해 47.7% 설명되었다($F=21.900$, $p<.001$). 구체적으로 말하면, 초등 영재학생의 핵심 덕목 중 지혜와 지식($\beta=.296$, $p<.001$), 초월성($\beta=.292$, $p<.001$), 정의($\beta=.181$, $p<.001$)가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혜와 지식에는 자신과 타인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제공할 수 있고 자신과 타인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세상을 보는 방식을 갖는 ‘통찰’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려는 태도인 통찰이 정서 지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초월성에는 더 큰 그림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고 올바르게 처신하고 편안함을 느끼게 도와주는, 삶에 대한 신념을 갖는 ‘영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초월성이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는 성격 강점 중 ‘지혜와 지식’, ‘초월성’, ‘정의’ 덕목의 계발이 정서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 초등 영재학생의 성격 강점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초등 영재학생의 성격 강점 전체와 핵심 덕목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2>와 같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다중공선성의 정도를 확인한 결과 VIF의 값이 1.424~2.433으로 적합하여 결과

<표 12> 초등 영재학생의 성격 강점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표준오차	β	t	F	R ²
학습 몰입	성격 강점	1.093	.114	.616	9.557***	91.344***	.380
	지혜와 지식	.580	.112	.436	5.180***		
	용기	.326	.126	.234	2.583**		
	인간애	-.022	.097	-.019	-.229	20.213***	.474
	정의	.074	.109	.058	.681		
	절제	.053	.115	.033	.465		
	초월성	.061	.097	.048	.624		

** $p<.01$, *** $p<.001$

로 정리하였다.

분석 결과 초등 영재학생의 학습몰입은 성격 강점에 의해 38.0% 설명되었다($F=91.344$, $p<.001$). 초등 영재학생의 학습몰입은 성격 강점($\beta=.616$, $p<.001$)의 영향을 받았고, 이는 초등 영재학생의 학습몰입은 성격 강점이 높을수록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또, 초등 영재학생의 학습몰입은 성격 강점 핵심 덕목에 의해 47.4% 설명되었다($F=20.213$, $p<.001$). 구체적으로 말하면, 초등 영재학생의 학습몰입은 핵심 덕목 중 지혜와 지식($\beta=.436$, $p<.001$)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며 그 다음으로 용기($\beta=.234$, $p<.01$)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격 강점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맹지현(201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지혜와 지식의 강점은 지식의 획득과 사용을 포함하는 인지적 강점들로 새로운 기술, 주제 지식을 숙달하고 호기심의 강점을 뛰어 넘어 자신이 아는 것을 체계적으로 더해 가는 경향성인 학구열이 포함되어 있다. 어떤 대상에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학습해 나가려는 경향성이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용기와 관련된 강점들은 내적, 외적으로 반대에 직면하여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의지의 사용을 포함하는 정서적 강점들이다. Csikszentmihalyi(1990)는 몰입이란 '행위에 깊게 빠져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 더 나아가서는 자신에 대한 생각까지도 잊어버리게 될 때를 일컫는 심리적 상태'라고 하였다. 또한 Csikszentmihalyi(1996)은 활동에 대한 흥미, 호기심, 의욕 등이 더 깊은 몰입을 경험하기 위한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용기, 시작한 것을 끝까지 해내려는 인내, 삶에 대한 에너지를 가지고 일하는 활력 등의 성격 강점이 학습을 시작한 후에 깊이 있게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핵심적인 강점이 되므로 이러한 성격 강점을 계발하는 것이 학습몰입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 영재학생의 성격 강점, 정서지능 및 학습몰입을 일반학생들과 비교하고, 초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성격 강점, 정서지능 및 학습몰입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성격 강점이 정서지능 및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데 있다. 연구 결과로부터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 영재학생이 성격 강점, 정서지능 및 학습몰입의 전체에서 일반학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p<.05$). 이는 영재아들은 지적으로 탁월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으로도 일반 아동보다 건강하다는 Terman(1925)의 주장을 확인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성격 강점의 핵심 덕목에서 초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 모두 사랑, 친절, 사회성의 성격 강점을 포함하는 인간애의 덕목이 가장 높았다. 초등 영재학생이 성격 강점 24가지 덕목 중 20가지의 덕목에서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영재학생이 일반학생보다 내적인 긍정적 성격 강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평균 차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성격 강점은 공정함, 호기심, 학구열이었는데 이러한 강점들은 영재판별에 의미가 있

는 성격 강점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윤여홍, 2003). 일반학생과 평균에서 차이를 보이는 긍정함, 호기심, 학구열 등의 강점을 영재관별 관찰추천의 항목으로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초등 영재학생이 일반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난 유일한 성격 강점은 겸손과 겸양이었다. 이 역시 영재의 뛰어난 언어 발달과 지나친 지적 호기심으로 인해 잘난 척을 하거나 논쟁적인 특성을 보인다는 연구와도 일맥상통한다(박성익 외, 2003). 겸손과 겸양의 부족은 또래와의 의사소통,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영재 인성프로그램에 겸손과 겸양의 덕목을 넣어 초등 영재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약점인 성격 강점을 강화해 주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정서지능 모든 하위영역에서 초등 영재학생이 일반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p < .05$). 이러한 결과는 과학영재가 일반학생에 비해 상위 정서지능 영역이 발달했다는 여상인과 백은주(2007)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자신의 감정 및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며 주어진 목표를 향해 자신의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정서지능 역시 영재의 정서적 특성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박성익 외, 2003; 이영한, 유미현, 2012; 이유진, 2012; 이은희, 2013; de Wet & 정현철, 2009).

한편 학습몰입의 모든 하위영역에서도 초등 영재학생이 일반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p < .05$). 이는 영재의 특성 중 높은 주의집중 능력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영재는 주의집중이 길고 흥미 있는 분야에 깊이 있게 몰입하는 특성이 있다(박성익 외, 2003). 이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영재학생이 일반학생보다 학습몰입이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구영수, 양연숙, 2013; 민현숙, 양연숙, 2012; 우민향, 2013; 정민, 2014). 하위영역별로 비교했을 때 초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평균 차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학습몰입 하위영역은 시간감각의 왜곡으로 이미선(2014)의 통제감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난다는 결과와는 다르다. 시간감각의 왜곡 다음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는 영역은 자기목적적 경험과 자의식의 상실 순으로, 이 영역들은 학습몰입의 상위단계로 학습몰입에서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을 판가름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초등 영재학생이 일반학생보다 좀 더 고차원적인 몰입의 단계에 빠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초등 영재학생은 성격 강점과 정서지능의 상관관계, 성격 강점과 학습몰입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매우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성격 강점과 정서지능, 학습몰입이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격 강점의 핵심 목표와 정서지능 하위영역의 상관관계에서 초등 영재학생은 정서의 사고촉진과 지혜와 지식과의 상관이 가장 높았다. 이를 통해 초등 영재학생은 정서지능의 좀 더 상위의 단계에서 지혜와 지식의 강점을 활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격 강점의 핵심 덕목과 학습몰입 하위영역의 상관관계에서 초등 영재학생은 구체적인 피드백과 지혜와 지식과의 상관이 가장 높았다. 초등 영재학생은 고차원적인 학습몰입을 위해 좀 더 노련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지혜와 지식의 성격 강점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초등 영재학생의 성격 강점은 정서지능과 학습몰입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성격 강점의 핵심 덕목 중 지혜와 지식, 초월성, 정의 순으로 정서지

능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혜와 지식, 초월성, 정의와 같은 덕목을 좀 더 강화시키고 높여준다면 정서지능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학습몰입은 성격 강점의 핵심 덕목 중 지혜와 지식과 용기의 성격 강점이 학습몰입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이로써 영재학생들의 지혜와 지식과 용기의 덕목을 좀 더 강화시키고 높여준다면 학습몰입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을 위한 성격 강점 설문 문항은 한 강점별로 2문항씩 밖에 없기 때문에 강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가 있다. 따라서 보다 신뢰도가 높은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검사 도구를 개발한다면 후속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초등 영재학생 및 일반학생의 성격 강점, 정서지능, 학습몰입과 관련하여 설문지만으로 측정했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의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성격 강점 중 겸손과 겸양에서 일반학생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낸 이유를 질적 연구를 통해 알아봄으로써 영재를 위한 정서 프로그램 개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재 초등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격 강점 연구는 매우 드물며, 심지어 초등 영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격 강점 연구는 본 연구가 유일하다. 청소년, 대학생, 교사,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격 강점이 긍정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고, 행복도, 자아존중감 등을 향상시켜 준다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격 강점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초등학생들의 행복도를 높여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초등 영재학생이 일반학생들 보다 정서지능이 높다는 많은 선행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초등영재들은 사회성이 떨어질 것이고 친구가 많지 않으며,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등의 잘못된 인식이 많이 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 연구한 기존의 영재 특성에 관한 책들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한국 영재의 상황과 일치하지 않은 데서 오는 오류일 것이다. 이는 한국 영재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해 한국형 영재의 특성을 재정립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구영수, 양연숙 (2013). 영재아와 일반아의 학습양식, 자기조절학습전략 및 학습몰입 비교 연구. **영재교육연구**, 23(2), 177-191.
- 김대성 (2012). **초등영재 학습몰입과 학교태도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김미진 (2011). **성격 강점과 행복 간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김아영, 탁하얀, 이채희 (2010). 성인용 학습몰입 척도개발 및 타당화. **한국교육심리학회**, 24(1), 39-59.
- 김지영 (2011). **성격 강점이 긍정적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곽윤정, 강민수, 이지혜, 엄채운 (2013). **내 아이의 강점지능**. 서울: 21세기북스.
- 권석만 (2008). **긍정 심리학.행복의 과학적 탐구**. 서울: 학지사.

- 권석만 (2011). **인간의 긍정적 성품**. 서울: 학지사.
- 남희영 (2011). **영재학급과 일반학급에서의 학습경험에 따른 초등영재의 자기효능감, 학습동기, 학습몰입 비교**.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문용린 (1999). 인성 교육을 위한 정서지능 개발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대논총**, 59, 31-98.
- 맹지현 (2012). **경력 사원과 기존 사원의 성격 강점이 행복과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민재식 (2011). **중학교 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정서지능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육대학교.
- 민현숙, 양연숙 (2012). 초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완벽주의, 학업스트레스 및 학습몰입 비교. **영재교육연구**, 22(1), 157-171.
- 박성익, 조석희, 김홍원, 이지현, 윤여홍, 진석역, 한기순 (2003). **영재교육학원론**. 서울: 교육과학사.
- 박성익(2003). 영재교육의 발전역사와 의의. 박성익, 조석희, 김홍원, 이지현, 윤여홍, 진석역, 한기순(편). **영재교육학원론**. 서울: 교육과학사.
- 박하진 (2011). **초등 수학영재의 학습몰입,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창의적 성향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박효진 (2012).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또래지위에 따른 성격 강점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 석임복 (2007). **학습몰입의 구조: 척도·성격·조건·관여**.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손보영 (2011). **초등학생의 성격 강점 발달이 학업성적 및 학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신행자 (2011). **농촌지역 중학생의 성격 강점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학교생활 만족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 신혜진 (2011). **지각된 대표 강점과 실제 대표 강점의 일치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여상인, 백은주 (2007). 초등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정서지능 비교. **국제과학영재교육**, 1(1), 43-49.
- 우민향 (2013). **초등과학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학습몰입과 행복감의 비교 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 윤여홍 (2000). 영재의 심리적 특성과 정서발달을 위한 상담,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9(1), 79-101.
- 윤여홍 (2003). 영재의 지적, 정의적 특성. 박성익, 조석희, 김홍원, 이지현, 윤여홍, 진석역, 한기순(편). **영재교육학원론**. 서울: 교육과학사.
- 이미선 (2014). **초등과학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과학학습동기와 학습몰입의 관계 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 이영한, 유미현 (2012). 중학교 과학영재 학생과 일반학생의 리더십 특성, 정서지능 비교 및 정서지능이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영재교육연구*, 22(4), 943-966.
- 이유진 (2012). **초등 영재학생의 정서지능과 자기조절학습능력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이은희 (2013). **초등영재와 일반학생의 정서지능과 창의적 성향 비교**. 석사학위논문. 대구교육대학교.
- 이지호 (2010). **초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학업적 자기조절 동기유형과 몰입과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교육대학교.
- 정민 (2014). **초등학교 과학수업에 대한 초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학습몰입과 수업만족도 비교**.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 최경아 (2005). **수학에 대한 정서, 정서지능, 학업성취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최상원 (2004). **초등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정서지능과 친사회적 도덕추론**.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Csikszentmihalyi, M. (1996). *Creativity: Flow and the psychology of discovery and invention*. New York, NY: Harper Collins.
- Csikszentmihalyi, M. (1997). *Finding Flow*. New York: Basic Books.
- de Wet, C. D., & 정현철(2009). 영재교육의 기초. 서울: 한국교총 영재교육원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
- Mayer, J. D., & Salovey, P. (1997). The Positive of Emotional Intelligence. *The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Snyder, C. R. & Lopez, S.J (Ed), 162,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ark, N., & Peterson, C. (2006). Character strengths and happiness among young children: Content analysis of parental description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7, 323-341.
- Park, N., Peterson, C., & Seligman, M. E. P. (2004). Strengths of character and well-being.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 603-619.
- Peterson, C. (2006). *A Primer in Positive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eterson, C., & Seligman, M. E. P. (2004).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 Handbook and Classific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Peterson, C., & Seligman, M. E. P. (2009). 긍정심리학의 입장에서 본 성격 강점과 덕목의 분류 [문용린, 김인자, 원현주, 백수현, 안선영, 역]. 서울: 한국심리상담연구소. (원본 출간년도: 2004).
- Renzulli, J. S. (1978). What makes giftedness? Reexamining a definition. *Phi Delta Kappan*, 60(3), 180-184, 261.
- Seligman, M. E. P. (2002). *Authentic Happiness*. New York: Free Press.
- Terman, L. M. (1925). *Genetic studies of geniu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Abstract =

Comparison of Character Strengths, Emotional Intelligence, and Learning Flow between Elementary Gifted Students and General Students and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Mun-Sook Park

Hyunil Elementary School

Mi-Hyun Yoo

Ajou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compare elementary gifted students with general students in respect of their character strengths, emotional intelligence and learning flow and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The results obtained in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character strengths, emotional intelligence, and learning flow of the gifted students were higher than those of the general students. Humanity was the highest virtue for both gifted and general students. Gifted students showed a significantly lower mean difference in humility and modesty than that of general students. The gifted students showed a statistically higher mean value in the sub-regions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all sub-areas of the learning flow than that of the general students. Second, the strong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character strengths and emotional intelligence, between character strengths and learning flow in gifted students. Thir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haracter strengths of gifted students affected their emotional intelligence and learning flow significantly.

Key Words: Elementary gifted student, General student, Character strengths, Emotional intelligence, Learning flow

1차 원고접수: 2014년 7월 30일
수정원고접수: 2014년 10월 29일
최종게재결정: 2014년 10월 29일